

21세기 대학 변화를 주도할 방향타



정우현
한국고등교육연구회장

대학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여 대학의 발전과 내실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부터 발행된 『대학교육』지의 지령 100호를 축하한다. 『대학교육』지는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기관지로 출발하여 전문 학술지와 대중지의 성격을 고루 갖추고 고등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본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고등교육의 놀라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행된 『대학교육』지는 대학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대학교육』지는 상아탑 속에 갇혀 있던 대학의 다양한 모습들을 대중에게 알리고 많은 정보를 대학들이 공유하게 하여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다. 더구나 격월간 발행과 부족한 지면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심층진단, 대학 안내, 새로운 강의방법의 소개 등 풍부한 자

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새로운 고등교육 환경은 더욱 새롭고 적극적인 역할을 『대학교육』지에 요청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안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불안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새로운 세기의 대학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어떤 것들은 상당히 구체화된 모습으로 다가와 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동안 특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양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대학이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 재정의 감축 등으로 인하여 도태될 수도 있는 '대학 위기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은 성장과 특권의 황금기를 지나서 생존을 위한 처연한 '전쟁'의 시기로 돌입하고 있다. 이제 대학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절로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며,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대학들이 이러한 생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학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미래 대학의 변화 모습을 모색하고 나름대로 생존방안의 수립에 열성을 보이고 있지만, 대학 사회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대학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미래 대학의 변화 모습을 모색하고 나름대로 생존방안의 수립에 열성을 보이고 있지만, 대학 사회 전체의 집단적 노력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대학의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들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 전체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내모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간혹 새로운 정책들은 전통적인 대학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로, 대학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심지어 교육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줄어드는 예비 대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과 학생들에 대한 구애(求愛)는 교육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새로운 세기의 대학의 존재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이념과 틀을 모색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심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위기와 변화의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방관적 태도가 대학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학이념과 대학교육의 모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학교육 관련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검증하며, 새로운 방향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교육』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이것이 『대학교육』지에 새롭게 부과된 임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에 관한 정보 제공 기능의 강화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대학에 관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다양한 대학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개인은 물론이고 대학 당국이 정책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단순히 정적인 자료를 나열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비판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대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확대이다.

사실 지금까지 『대학교육』지가 정보의 '일방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학을 건설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새로운 대학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교육』지가 전문 학술지와는 차별되는 이론 형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는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의 구성, 새로운 교수방법과 효율적인 교육평가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재를 다루어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대학평가에 대한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교육』지는 고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집단들(예를 들어 학부모, 고등학교, 기업체 등)의 참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요 독자층은 대학으로 제한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는 고등교육 이해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정책을 알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의 토대를 제공하는 기능 또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교육』지가 학술지로서의 성격 못지 않게 대중지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의 장으로서 21세기 대학의 변화를 주도할 방향타 역할을 담당하기 바란다.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은 필수적이다. 『대학교육』지는 대학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건전한 비판기능이 상실된 잡지는 그 존재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학에 관한 자유로운 사고와 이념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으로

서의 『대학교육』지가 우리 나라 대학에 미칠 발전적 영향을 기대해 본다. **정우현**

정우현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고려대 교수를 거쳐 한국직업교육학회장, 교사교육연구협의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이주대 교육대학원장으로 재직중이며, 한국고등교육연구회장, 고려대 명예교수, 한미(Fulbright)재단 이사, 한국교육문화정책개발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직업기술교육론』, 『교사론』, 『교육사회학 연구』, 『더불어 사는 지혜』, 『한국의 전문직 시험제도』 등이 있다.